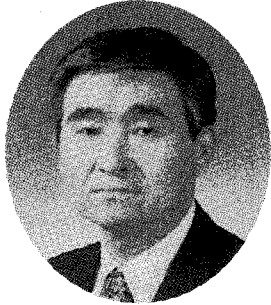


이제 우유의 본질적인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 흥 원

낙농자조금운영위원(협회부회장, 서울우유조합장)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규모를 30억원으로 확정, 낙농가의 원유대에서 원유kg당 1원씩 1년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유소비 둔화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수입유제품은 끊임없이 국내시장을 파고들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유의 본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확충과 수입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1 세기의 새 천년을 맞이 하면서 세계경제 질서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수입 개방 확대를 전제 한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가입을 성사시키는 한편, 그동안 자국의 산업보호 또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육성을 위해 남겨 두었던 수입 개방 제한폭을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고는 있으나 원래 협상이 제기된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 확인 사실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양축가들의 바람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외환위기(IMF)의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 안정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뉴라운드 협상과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 패소, 음용유의 유통기한 연장 등 일련의 사태들은 낙농산업의 생산기반까지 위협받는 변화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외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유나 음료시장이 급속히 팽창되고 또 호황도 누렸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 콜라나 커피 등 일반 음료시장보다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유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우유·유제품에 대한 획기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우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실상을 겪었고, 개방화된 국제 경

쟁속에서 낙농업 존재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낙농산업에 있어 하루빨리 자립과 자존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축농가라면 모르는바 아닐 것이다.

터전의 붕괴가 우려되는 수입 개방의 물결 속에 그동안 낙농자조금제도의 도입이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으나 실행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외환위기, 분유체화, 원유가격 인하문제가 강력히 대두되면서 본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98. 6.30 낙농자조금제도 추진대회가 개최되어 그 실행의 길을 열었다.

납유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원유대에서 공제하여 약 20

역원의 자조금을 조성키로 결정 하므로서 낙농불황 타개와 우유·유제품 소비촉진에 낙농가가 스스로 참여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농가가 직접 소비촉진 활동에 동참하여 ① 국산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 ② 소비확대를 통한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확충, ③ 낙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에 두고, 공동소비촉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 낙농가를 배제하므로서 항구적이고 진취적인 낙농사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제 선진국들도 급격한 소비둔화로 겪고있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조금제도를 도입, 정부의 지원하에 의욕적인 공동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은바 있다.

이는 농가 자율적인 납부방식으로 무임승차자가 많았고,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홍보부족, 과도한 인력소요 등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다.

금번 낙농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1만7천호의 낙농가 모두가 참여하고, 조성

된 자금으로 우유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사업에 전액 투자하므로서 낙농불황을 조기에 진압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1월현재 1만1천여 낙농가가 참여하여 16억7천만원의 자조금을 직접 조성하였고, 정부 또한 조성액의 50%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25억원이라는 자조금이 확보되므로써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촉진 활동에 참여하여 낙농불황 조기종식과 생산기반의 안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확보된 자조금으로 ① 광고홍보사업(매스컴을 통한 광고 및 PR), ② 관측·이벤트사업(앰블렘, 팜플렛제작배포), ③ 범국민 소비촉진운동(사랑의 우유 나누기 등) ④ 소비자단체와의 연대 및 우유요리강습회등의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우유소비기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로 음용시유 시장은 20%이상 위축되었고, 체화된 분유는 1만6천톤에 이르러 금년 상반기까지는 불황탈출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우유소비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하반기에 가서는 유업체간 원유쟁탈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패거리를 체험하였다. 앞으로 낙농가 모두가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낙농인이 솔선하여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낙농자조금 제도는 그 효과면에 있어서 투입된 비용보다 큰 성과의 기대겠지만 우선 소비촉진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 유가공업체, 정부가 삼위일체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낙농가들도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에도 참여하여 일익을 담당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유가공업체들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시장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의 밑바탕에는 자사제품의 선전에만 열중했지 우유의 본질적인 홍보는 다소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극적인 우유홍보와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낙농산업이 별 어려움없이 발전해 왔던 것은 국내 낙농이 시유 생산 중심으로 흘러왔고, 시유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장산업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제 새로운 개방협상이 진행되고, 지금까지 성역처럼 여겨왔던 시유부문도 유통기한의 연장으로 값싼 멸균유나 농축유는 물론 살균시유까지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수입 불가능이라는 성

역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으며, 모조분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은 결국 국내산 우유소비를 둔화시키고 그 부담이 낙농가에게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우리 낙농가들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규모를 30억원으로 확정, 낙농가의 원유대에서 원유kg당 1원씩 1년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 낙농자조금의 위력은 모두가 이미 체험하고 있다. 앞으로 우유소비 둔화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수입유제품은 끊임없이 국내시장을 파고들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유의 본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확충과 수입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자조금법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로 금년 회기내의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법적 장치가 잘 갖추어진 기초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농가 스스로가 시장개척에 참여하고,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국내산 원유로 생산되는 우유 및 유제품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국민 소비자에게 전달, 이해시킴으로써 수입유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방어하고 우유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낙농가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참여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낙농자조금사업 추진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새삼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여해 주신 낙농가와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관계자, 그리고 적극 지원해 준 정부당국에 감사드리고,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준 유업체, 소비자에게도 감사와 함께 끊임없는 우유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낙농가들도 하루빨리 동참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 낙농가들이 꿈꾸고 있는 안정과 풍요가 충만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필자연락처: 02-433-8151〉

낙농자조금사업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윤재관

낙농자조금운영위원(협회부회장)

낙농자조금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짧은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분유재고량을 줄이고 폭락하였던 젖소송아지값을 회복시켜 안정기조를 되찾게 된 성과도 가져왔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농산업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겠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낙농자조금사업에 다같이 동참합시다.